

## 儒門事親에 나타난 小兒와 관련된 理論과 治法에 대한 考察

정우병, 김기현, 장규태, 김장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 A Study on the Therapeutic Theory of Rumenshiqin(儒門事親) concerning Pediatrics

Jung Wu Byung, Kim Ki Hyun, Chang Gyu Tae, Kim Jang Hyu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 Rumenshiqin(儒門事親) was compiled by Zhang Zi Huo(張子和) of the Jin(金) Dynasty of China. He invented unique medical theory and treatment such as three excretive methods(perspiratory, vomitory and purgative therap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therapeutic theory of Rumenshiqin(儒門事親) connected with pediatrics.

**Methods**: We conducted literature search in detail for contents of Rumenshiqin(儒門事親) and reviewed various kinds of books.

**Results** : Zhang Zi Huo(張子和) recognized that children had pure-yang bodies(純陽之體) and emphasized that children need to prevent heat-stagnation(鬱熱) and asthenic yin(損陰). He instructed that a principle of raising such as wearing thin clothes, eating fresh food, harboring little desire and little anger, and taking temperate medicine. He described that pathogenic factors were mistake of rearing, misuse of medicine, exogenous factor, and excessive emotion.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his therapeutic theory should be used at present

**Key word** : Rumenshiqin(儒門事親), therapeutic theory, children

## I. 緒 論

〈儒門事親〉은 張子和(1156-1228, 이름 從正, 號 戴人)가 남긴 十種의 著作을 後人이 編成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으로, 總 15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儒門事親〉中 第13卷 〈治法心要〉에 대해 李濂의 〈醫史〉에서 “子和初創之, 知機潤色之 而仲明又摭其遺爲治法心要”라고 評하고 있어서 〈儒門事親〉의 完成은 張子和 一人의 勞苦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麻知機(1174 - 1232, 이름 九疇, 字 知機)와 常仲明(生沒年代不分明, 이름 尙德, 字 仲明)의 助力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儒門事親〉은 獨特한 張子和의 醫學思想이 仔細히 記錄되어 있으며, 게다가 〈儒門事親〉中 第6卷, 7卷, 8卷인 〈十形三療〉에 200여개의 醫案이 收錄되어 있어서 臨床書로서의 價値도 크다<sup>1)</sup>.

張子和의 醫學思想은 〈內經〉과 〈傷寒論〉의 精神을 충실하게 따르고, 여기에 劉河間의 醫論을 補充하여 形成된 것이다<sup>2)</sup>. 그의 醫學思想의 特徵은 〈儒門事親〉中 第12卷 〈三法六門〉에 概括되어 있다. 〈三法六門〉에 따르면 張子和는 劉河間의 六氣致病 理論에 立脚하여 各種 疾病의 原因을 六淫의 邪氣로 認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邪氣의 침입으로 疾病이 發生하면, 疾病을 治療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邪氣를 驅逐하는 것이 된다. 이 病因 認識을 基本으로 하여 구체적인 治療方法으로 提示된 것이 바로 汗·吐·下 三法이다. 그는 항상 합리주의적인 견지에서 醫論을 展開하였으나 그의 주장에 대해 當代 사람들의 많은 反對가 있었기 때문에 〈儒門事親〉에는 論爭과 辯護性의 文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sup>3)</sup>.

또한 張子和는 小兒의 診療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儒門事親〉中에는 小兒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收錄되어 있고 내용도 詳細하여, 小兒의 病理論과 治法이외에도 胎教法과 養育法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方面의 내용들이 記錄되어 있다. 더불어 多數의 小兒科 治驗例가 記載되어 있어 小兒科 臨床 適用에 有利하다<sup>4)</sup>. 現代社會와 張子和의 生存時代 사이에는 醫療人의 자세, 小兒에 대한 補劑와 熱藥의 濫用등 여러 가지로 共通點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張子和의 醫學思想과 醫案을 통해 오늘날의 小兒科 領域에 應用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論을 摸索하기 위해서 〈儒門事親〉을 小兒科와 관련된 記事를 中心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 II. 本論및 考察

### 1. 小兒 生理論과 養育法에 대한 考察

#### 1) 小兒의 生理論에 대한 考察

張子和가 認識하고 있던 小兒의 生理的 특징은 劉河間의 理論을 傳受한 것으로 小兒를 純陽之體로 認識하였다. 이에 따라 小兒를 溫暖하게 養育하는 世態에 대해 〈儒門事親〉中에서 여러차례 批判을 가하고 있다.<sup>5)</sup> 〈儒門事親, 卷1, 9〉 “〈曲禮〉云: 童子不衣裘裳. 〈說〉云: 裘大溫 消陰氣, 且人十五歲成童 尙不許衣裘. 今之人養稚子 當正夏時 以綿袂裹腹 日不下懷 人氣相蒸. 見天稍寒 卽封閉密室 睡氈下幕 煖炕紅爐 使微寒不入 大煖不泄, 雖衰老之人 尙猶不可, 況純陽之小兒乎.”를 보면 小兒는 胎生의 陽氣가 강한데, 여름에도 따뜻

한 옷을 입히고 겨울에 난방을 지나치게 하면, 小兒가 寒氣와 接觸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小兒 內部的 陽氣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게 되어서 鬱熱이 생기고 陰氣를 消耗하게 된다.

또한 <儒門事親, 卷1, 9>에서 “小兒陽熱復以熱毒之藥 留毒在內 久必變生 故劉河間先生以通聖 涼膈 神芎 益元 治之, 皆無毒之藥.”라고 하여서 小兒가 본래 陽熱한데 더하여 熱毒한 藥을 먹으면 곧 毒이 되므로 小兒에게는 河間이 말한 바와 같이 冷寒한 藥을 주어 治療한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醫家の 분위기가 주로 補法을 구사하고 있고, 補法은 주로 溫熱한 藥材를 이용하는데, 그러한 誤用은 成人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成人에 비해서 陽氣가 많은 小兒에게는 더욱 큰 피해를 입힌다는 批判의 視覺이다. 또한 이 文章에서 張子和가 가지고 있던 小兒의 生理觀과 治法이 劉河間의 영향을 받아 成立된 것을 알 수 있다.

劉河間은 小兒에 대해 陽熱之體라는 觀點을 항상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가 小兒에게 사용한 治法은 대부분이 清熱法이다. 張子和는 여기서 進一步하여 小兒에게 더욱 적극적인 治法인 汗·吐·下 三法을 주로 운용하였다. <儒門事親, 卷1, 9> “或曰此大人所服之藥 非小兒所宜也. 余聞笑曰 大人小兒 雖幼壯不同 其五臟六腑 豈復殊耶 大人服多 小兒服少 其實一也.”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小兒와 大人의 生理는 다르지 않다는 觀點을 갖고 있었다. 小兒에게 까지 汗·吐·下 三法을 주저하지 않고 應用했던 것은 이런 思想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小兒에 대해 汗·吐·下의 治療法을 사용한 것은 <儒門事親> 中の 많은 醫案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儒門事親>의 醫案에서 張子和는 成人과 小兒를 不問하고 汗·吐·下 三法을 많이 運

用하였지만, 小兒 특유의 生理的 특징을 看過하고 小兒에게 항상 成人에 준하여 攻下하는 方法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 <儒門事親, 卷11, 二火類> “小兒易虛易實 腸胃嫩弱 不勝其毒.”, <儒門事親, 卷1, 9> “小兒初生之時 腸胃綿脆 易饑易飽 易虛易實 易寒易熱 方書舊說 天下皆知之矣.”라고 하여 小兒는 어른보다 쉽게 虛하게 되고 쉽게 實하게 되며 腸胃가 軟弱하여 藥毒에 脆弱하다는 前提를 잊지 않고 있다. 또한 <儒門事親, 卷11, 二火類> “凡治小兒之法 不可用極寒極熱之藥 及峻補峻瀉之劑 或誤用巴豆,杏仁, 硫黃, 膩粉之藥 若用此藥 反生他病.”이라고 하여 소아를 치료할 때에는 極도로 寒하거나 極도로 熱한 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무분별한 攻下法을 구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要約하건데, 張子和는 小兒의 生理에 있어서 火熱의 作用을 매우 重視하여서 小兒의 火가 쉽게 熾盛해지는 것에 대한 憂慮를 항상 하고 있었다. 그러나, 小兒를 純陽之體로만 認識하여 그 점에 執着한 것은 아니고, 小兒 各各에 대한 慎重한 接近으로 患兒의 常態를 精確하게 判斷하려는 姿勢를 堅持하였다. 이는 小兒에게 過感한 汗·吐·下 三法을 運用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는데, 攻下法은 잘못된 判斷이 커다란 過誤를 惹起 할 수 있는 治療法으로 小兒 각각의 病症 및 狀況에 대한 精確한 診斷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養育法에 대한 考察

<儒門事親> 中에는 小兒에 관한 記述이 많고 그 내용도 자세하여 張子和의 小兒科 診療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小兒 養育에 대한 論說도 多數 찾아 볼 수 있다. 張子和의 小兒에 대한 認識은 劉河間의 純陽之體論에

서 출발한 만큼 小兒 養育에 대해 설명하는데 있어서 小兒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熱을 어떻게 發散시키고, 鬱熱과 陰損을 어떻게 防止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 후에 이 관점에 一貫되게 養育의 基準을 提示하고 있는데, <儒門事親, 卷1, 過愛小兒反害小兒說> “其病之源止有二: 曰飽, 曰煖.” 라고 하여 小兒가 病이 생기는 根源은 단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飽와 煖이라고 하였다. 小兒는 陽熱한 체질로 煖하면 熱이 發散될 수가 없고 飽하면 濕化하여 濕熱이 되니 이것이 小兒가 病이 생기는 모든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한 論點에서 小兒 養育의 理致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儒門事親, 卷1, 過愛小兒反害小兒說> “育子之理者有四焉 薄衣 淡食 少慾 寡怒 一也. 無財 少藥 其病自痊 不爲庸醫熱藥所攻 二也. 在母腹中 其母作勞 氣血動用 形得充實 三也. 母既作勞 多易生產 四也. 此四者 與富家相反也.”라고 하여 養育의 要點은 첫째가 薄衣, 淡食, 少慾, 寡怒하는 것이고, 둘째가 藥의 사용을 自制하는 것이고, 셋째가 胎中에 있을 때 어머니가 적당한 勞動을 하여 氣血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넷째는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연히 順産이 되어 小兒에게 害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儒門事親, 卷1, 過愛小兒反害小兒說> “怒少則肝病少 稍不如意則怒多 怒多則肝病多矣. 夫肝者木也. 甚則乘脾矣.”라고 하여 소아의 심리적인 안정을 攝生에 중요한 要素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儒門事親, 卷1, 9> “...此四者 與富家相反也.”, “...故貧家之育子 雖薄於富 其成全小兒 反出於富家.”에서 보면 그가 제시한 養育의 要點은 富貴한 집안의 자식일수록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富貴한 집의 자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행동하여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怒하며, 작은 병이 생겨도 쉽게 藥을 구하여 함부로 사용하고, 富貴한 집의 産母는 妊娠中에 적당한 勞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부자집의 부모는 아이에게 음식을 많이 먹이고, 옷을 따뜻하게 입히며, 난방을 지나치게 덥게 하므로 가난한 집은 부자집에 비해 부족하지만 小兒를 온전하게 키우는 것은 가난한 집이 도리어 有利하다고 하였다. 當時에 富貴한 집에서 아이를 養育하는 방법은 現代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를 養育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주거환경이 四時에 관계 없이 지나치게 온난하며, 음식물이 풍부하여 풍족하게 먹이고, 아이가 하나인 가정이 많아서 아이의 성질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등 現代의 그릇된 養育方法에 대해 이 論說은 큰 교훈이 된다. 게다가 張子和는 <儒門事親, 卷1, 9> “兒未坐時 臥以赤地 及天寒時 不與厚衣 布而不綿 及能坐時 以鐵鈴木壺雜戲之物 連以細繩 置之水盆中 使一浮一沈 弄之有聲 當炎暑之時 令坐其傍 掬水弄鈴 以散諸熱.”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생활양식과 놀이방법까지 제시하는데 아이를 寢床이 아닌 맨 바닥에 눕혀 재우고, 날씨가 차가워도 두꺼운 옷을 입히지 않으며, 시원한 배움을 입히고 따뜻한 면옷은 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쇠구슬, 나무, 향아리로 물장난을 치게 하고, 놀 때는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며 놀게 하였다. 차가운 물건으로 물장난을 하며 노는 것은 <素問, 陽明脈解篇> “四支者, 諸陽之本也.”를 근거로 한 것으로 손으로 물을 만지면 陰氣가 內部에 이르러 陽火를 억제하여 小兒의 陽熱致盛을 防止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리를 지르는 것은 小兒 內部의 火를 暢達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小兒의 情緒의인 安靜에 대해 아이가 자라는 環境의 중요성을 力說하여

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精神健康狀態가 아이의 情緒와 健康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儒門事親, 卷5, 89> “...已上證候 可用吐涎 及吐之藥 如吐訖宜用朱犀腦 麝 清涼 墜涎之藥 若食乳之子 母亦宜服 安魂定魄之劑 定志丸之類.”라고 해서 小兒가 授乳中이려면 母에게도 定志丸을 복용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授乳를 통해서 定志丸의 藥力을 小兒에게 미치게 하려고 한 것을 投藥의 목적으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小兒에게도 이미 따로 處方을 주고 나서 母에게 재차 處方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張子和의 의도는 授乳를 통해 藥을 傳達하려고 한 것이기 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母의 心理的 안정을 小兒가 治癒되는데 先決條件으로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sup>4)</sup>.

또한 張子和는 妊娠中 產母의 情緒도 産後 小兒의 健康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서 <儒門事親, 卷5, 發驚潮搐> “夫小兒三五歲時 或七八歲 至十餘歲 發驚潮搐 涎如拽鋸 不省人事 目瞪喘急 將欲死者, <內經> 曰: 此皆得於母胎中 所受悸惕 怕怖 驚駭 恐懼之氣. 故令 小兒輕者 爲驚吊 重者 爲癇病 風搐爲 腹中積熱 爲臍風,”이라고 하였다. 小兒의 發驚이 원인으로 妊娠中인 產母의 否定的인 情緒를 지적하여서 胎敎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儒門事親, 卷5, 發驚潮搐> 에서도 “如婦人懷孕之日 大忌 驚憂悲泣.”라고 해서 妊娠中에 產母는 놀라거나, 우울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우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하여 精神적인 측면의 胎敎를 중요시 하고 있다. 실제로 <儒門事親, 卷6, 54> “清州王之一子 年十餘歲 目赤多淚 衆工無效 戴人見之曰 此兒病目翳 當得之母腹中被驚 其父曰 妊娠時 在臨清被圍.”라고 하여 小兒의 目翳病이 產母가 妊娠中에 적의 포위를 당하여 놀란 것 때문에 誘發되었다고 認識하였을 정도로 胎

敎, 그 중에서도 특히 情緒的 安靜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2. 小兒 病因論과 治療法에 대한 考察

### 1) 小兒의 病因論에 대한 考察

#### (1) 養育不調

張子和는 <儒門事親> 에서 小兒가 發病하게 되는 原因으로 養育의 不調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小兒에게 病이 생기는 것은 그가 언급한 養育의 原則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儒門事親, 卷1, 9> “小兒除胎生病 外有四種: 曰驚 曰疳 曰吐 曰瀉. 其病之源 止有二: 曰飽 曰煖 驚者 火乘肝之風木也, 疳者 熱乘脾之溼土也, 吐者 火乘胃膈 甚則上行也, 瀉者 火乘肝與大腸 而瀉者也.”에서 小兒에게 발생하는 胎生病 이 외의 4가지 중요한 병으로 驚, 疳, 吐, 瀉를 指目하고 各各의 原因을 밝히고 있다. 驚은 火氣가 肝을 侵犯한 것이고, 疳은 熱이 脾를 侵犯한 것이고, 吐는 火氣가 胃를 侵犯한 것이고, 瀉는 火氣가 肝과 大腸을 侵犯한 것이라고 하여 四種病 모두 小兒가 本來 陽性인데, 攝生을 바르게 해주지 못해서 火氣가 極盛하게 되어 發生한 것이다.

<儒門事親> 中 주로 醫案이 收錄되어 있는 <十形三療> 中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실수가 小兒의 發病 原因이 되는 경우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儒門事親, 卷6, 34> “小兒病 手足搐搦 … 戴人曰 心火勝也, 勿持捉其手 當從搐搦, 此由乳母 保抱太極所致.”라고 하여 小兒의 手足搐搦을 本來부터 陽熱한 小兒를 乳母가 안고 있는 것이 지나쳐서 小兒固有의 熱이 發散되지 못하므로 心火가 承하게 되어서 發生한 것으로 診斷하였다. <儒門事親, 卷7, 104> “陳州長吏一小兒 病寐而不寤

… 其父曰: 此子平日無疾 何驟有驚乎. 以子之病 乃問於戴人. 戴人診其兩手 脈皆平和. 戴人曰: 若驚風之脈 當洪大而強 今則平和 非驚風也. 戴人竊問乳母, 爾三日前 曾飲醉酒否? 遽然笑曰: 夫人以煮酒見餉, 酒味甚美 飲一罇而睡 陳酒味甘而戀膈 酒氣滿乳 兒亦醉也.”를 보면 平素에 아무런 病이 없던 한 乳兒가 잠이 들어 깨어 나지 않았는데, 만약 驚風이라면 脈이 洪大하고 強해야 하는데 이 아이의 脈은 和平해서 驚風은 아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乳母를 추궁해 보니 乳母가 술을 마시고 授乳를 했는데 술을 마신 乳母의 胸膈에 술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授乳를 받은 유아 역시 취하여 깨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小兒의 病을 살필 때는 사소한 養育의 실수가 病의 原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銘心하여 작은 부분도 놓쳐서는 안된다.

養育 中の 過誤는 食餌로 인한 것이 특히 많은데 <儒門事親, 卷7, 109> “舞水一富家 有二子 長者年十三歲 幼者十一歲 皆好頓食紫櫻一斗斤 每歲須食半月 後一二年幼者發肺癰 長者發肺痿 相繼而死. 戴人常歎曰: 人之死者 命耶 天耶 古人有詩爽口味 多終作疾 眞格言也. 天生百果所以養人 非欲害人 然富貴之家 失教縱欲 遂至於是.”에서 보면 13, 11세의 형제가 紫櫻을 지나치게 먹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각각 肺癰과 肺痿가 생겨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입에 맞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인 것은 病의 原因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養育에서 주의할 것은 食餌나 溫暖 失調 뿐 만이 아니다. <儒門事親, 卷6, 11> “常搦時 切戒把捉手足, 握持大急 必半身不遂也.”를 보면 小兒가 單純히 搦하는데 이것을 鎮靜시키기 위해 손발을 너무 꼭 잡으면 아이에게 半身不遂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小兒를 養育하는데 대한 張子和 조심스러운 태도를 읽을 수 있다.

## (2) 醫師의 誤治

張子和가 小兒의 病因으로 養育의 失調 다음으로 頻繁하게 言及한 것이 바로 醫師의 誤治이다. 小兒는 쉽게 虛하고 쉽게 實하며 腸胃가 嬌嫩하므로 잘못된 藥이 投與되면 쉽게 毒이 되어 빠르게 惡化된다. 그러나 當代의 醫師들은 이러한 사실을 妄覺하고 藥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피해가 매우 深刻하였다. 現代에도 이와 비슷한 樣相으로 醫師들이 小兒에게 藥을 함부로 投與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이야기는 現在 비추어 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

醫師의 誤治로 인한 小兒의 發病은 여러 醫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儒門事親, 卷6, 14> “鄧之營兵秋家小兒 病風水 諸醫用銀粉粉霜之藥 小洩反澀 飲食不進 頭腫如腹 四肢皆滿 狀若水晶 … ”라고 하여 小兒가 風水病이 생겼는데 醫師가 藥을 잘못 사용하여 症狀이 더욱 심해 진 경우를 말하고 있다. <儒門事親, 卷6, 45> “高燦巡檢之子八歲 病熱 醫者皆爲傷冷治之 以熱藥攻矣 欲飲水 水禁而不與 內水涸竭 煩燥轉生 前後皆閉 口鼻俱乾 寒熱往來 嗽欬時作 遍身無汗.”에서는 小兒가 熱病이 생겼는데 醫師가 이를 冷에 傷한 것으로 잘못 診斷하여 熱藥으로 誤治하여 內部の 水가 涸竭되어 煩燥하며 大小便이 모두 막히는 등, 惡化 된 경우를 記述하고 있다. 張子和는 이렇듯 醫師들의 無知로 인한 藥邪가 疾病을 더욱 심하게 하여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非一非再함을 念慮하여 <儒門事親>의 여러 部分에서 猛烈히 批判하고 있는데 <儒門事親, 卷1, 5> “… 或言瘡疹首尾 俱不可下者 此朱奉議公之言也 適足使人 戰戰兢兢 而不敢用藥也. 錢仲陽之用 百祥丸 其間有大戟 豈奉議公獨不見耶 自奉議公 斯言一出 死者塞路矣.” 라고 하여 小兒의 瘡疹에 마땅

히 泄瀉 시켜서 治療 해야 할 것을 朱奉議가 잘못된 知識으로 사람들을 眩惑하게 하니 그 被害가 크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當代의 醫師들은 주로 溫補法을 濫用하여, 純陽之體인 小兒는 被害가 成人에 比해서 더욱 컸다. 日常으로 小兒에게 頻發하는 작은 病들을 醫師들이 잘못된 藥을 投與하여 危重한 病으로 惡化시키는 境遇가 많음을 慨嘆하고 있다. <儒門事親, 卷1, 9> “醫者不明 其本輒以紫霜進食 比金白餅之屬 其中皆巴豆 杏仁 其巴豆大熱 有大毒 杏仁 小熱 有小毒. 小兒 陽熱復以熱毒之藥 留毒在內 久必變生 故劉河間先生 以通聖 涼膈 神芎 益元 治之 皆無毒之藥.”이라고 해서 醫師들이 病의 原因도 모르고 巴豆 杏仁등의 熱毒한 藥을 사용하여 본래 陽熱한 體質인 小兒들에게 害를 끼치고 있음을 批判하고 오직 河間 先生이 寒涼法을 사용함을 올바른 治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傾向은 張子和의 醫學 思想 全般에 걸쳐 共通된 것이기는 하나 小兒科 領域에 있어서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批判은 <儒門事親>에 頻繁하게 등장하는데 “忽歲在丙戌 群兒皆病 泄瀉, 但用藥者 皆死, 蓋醫者 不達濕熱之理, 以溫燥行之故皆死.”를 보면 어느 해에 傳染病이 생겨서 小兒들에게 泄瀉病이 發하였는데 藥을 먹은 아이들은 모두 죽고 오직 藥을 먹지 않은 아이들만 살았다고 해서 당대의 醫師들의 誤治로 인한 弊害가 얼마나 컸는가 짐작 할 수 있다.

張子和는 심지어 “有病不治 得中醫除.”라고 해서 “病이 있으나 治療하지 않는 것이 中間定度の 醫師가 된다.”라고 까지 했으며 <儒門事親, 卷1,9>에서는 “余嘗告於陳敬之 若小兒病緩 急無藥 不如不用 庸醫但恐 妻妾怪其不醫 宜湯浸蒸餅 令軟丸作白丸 給其妻妾 以爲眞藥 使兒服之 以聽天命 最爲上藥.”라고 하여

小兒에게 病이 생겼을 때 醫師의 잘못된 治療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 편이 좋은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주변에서는 이를 誤解하여 아픈 아이를 治療하지 않는다고 비난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떡을 환약처럼 만들어 藥을 먹이는 시늉은 하되 實際로 藥을 먹이지 않는 방법을 具體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張子和가 갖고 있던 당대의 醫師들에 대한 不信의 定度を 짐작할 수 있다.

### (3) 外感邪氣

<內經> 이래로 醫家들은 外感邪氣가 疾病의 중요한 原因이라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다. 張子和 역시 <內經> 과 <傷寒論>의 理論에 충실했고, 劉河間의 六氣致病의 理論을 傳受하였으므로, 各種疾病은 六淫의 邪氣에 의해 發生한다는 認識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小兒에게도 一貫되게 유지되어 <儒門事親, 卷11, 立諸時氣解利禁忌式> “外感邪 頭痛 身熱狀 傷寒…”이라고 하여 外感邪로 인한 頭痛, 身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儒門事親, 卷4, 31> “...外感風冷寒濕之致然也.”라고 해서 風, 冷, 寒, 濕이 병이 原因이 됨을 論述하고 있다. 이렇듯 <儒門事親> 중에서 外感邪氣가 小兒科疾病의 原因이 되는 경우가 登場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養育失調나 藥邪가 病因이 되는 경우에 비해서 論述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小兒의 경우에는 成人에 비해서 養育失調나 誤治가 病의 原因이 되는 경우가 頻繁하므로 成人과 마찬가지로 外感病因 부분이 相對적으로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儒門事親> 卷4 <直言治病百病>에는 <內經>의 理論에 따라 風, 暑, 濕, 燥, 火, 寒의 六氣가 일으키는 疾病에 관해 각각 論述

하고 있는데, 이 중 小兒에 관련된 記事는 다음과 같다. <儒門事親, 卷4, 1> “風一. 夫風者厥陰風木之主也. … 小兒驚悸 … 肝木爲病人氣在頭…”, <儒門事親, 卷4, 2> “夫暑者爲少陰君火之主也 … 肺金爲病人氣在胸 及小兒瘡疹 丹熛 腫發 人氣在腹 …”, <儒門事親, 卷4, 4> “夫火者 少陽相火之主也. … 小兒疳瀉 腹脹 暴下如水 …”. 즉, 風篇, 暑篇, 火篇에서 小兒科의 특징적인 疾病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외의 濕篇, 燥篇, 寒篇에서 특별히 小兒에게 발하는 疾病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濕, 燥, 寒의 外氣가 小兒에게 발하는 疾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風篇, 暑篇, 火篇에서 언급한 小兒의 病態는 成人과 다른 기전을 갖고 특징적으로 小兒에게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따로 記載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로 成人과 같은 기전으로 생기는 病症候는 생략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儒門事親, 卷11, 論火熱二門> “傷寒者, 外感 于寒邪也.” 에서는 寒邪가 傷寒의 原因이 되며 <儒門事親, 卷6>에서 小兒 傷寒에 대한 治驗例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成人과 小兒에게 공통되는 病理는 따로 나누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張子和는 이 외에도 小兒는 成人에 비해 外氣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므로 四時의 氣候變化로 인한 疾病에 이환되기 쉽다는 認識을 하고 있다. <儒門事親, 卷6, 瘡癩癰疹> “夫小兒瘡癩癰疹, 跌瘡丹熛等疾, 如遇火運勝時.” 라고 하여 화기가 勝한 시기에 小兒에게 皮膚疾患이 잘 발생한다고 하였고, <儒門事親, 卷15> “假如秋深發瘡, 瘡者中暑而得之,” 라고 하여 瘡疾이 中暑에서 얻어 진다고도 하여 外部 氣候變化가 小兒의 病을 誘發한다고 하였다. <儒門事親, 卷10> “大暑未上四之氣. 四之氣爲病 多發暑氣 頭痛身熱發渴 不宜作熱

病治 宜以白虎湯 得此病不傳染 次發 脾泄 胃泄 大腸泄 小腸泄 大瘦泄 霍亂 吐瀉 下痢 及赤白相雜 水穀不分消 腸鳴切痛 面浮足腫 目黃 口乾 脹滿氣痞 手足無力 小兒亦如此 四之氣 病宜滲泄 五苓之類.”, <儒門事親, 卷10> “秋分 酉上五之氣. 五之氣爲病多發喘息 嘔逆 欬嗽 及婦人 寒熱往來瘡 痺痔 消渴 中滿 小兒 斑癩瘡皰. 五之氣病 宜以大小柴胡湯 宜解治表裡之類.”에서도 小兒가 外部 氣候變化의 영향으로 發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 (4) 情志過極

<儒門事親> 에는 精神과 관련된 病理기전이 以前의 醫書들에 비해 많이 論說 되고 있다<sup>6)</sup>. <儒門事親, 卷3, 九氣感疾更相爲治衍> “靈樞論 神意魂魄志精 所主之病 … 余以是推而廣之…” 라고 하여서 <素問> 과 <靈樞> 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발전시킨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儒門事親, 卷3, 26> “氣本一也, 因所觸而爲九, 所謂九者, 怒 喜 悲 恐 寒 暑 驚 思 勞也.” 라고 하여 하나의 氣가 변화함에 따라 怒, 喜, 悲, 恐, 寒, 暑, 驚, 思, 勞의 9가지로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情志過極으로 인해 發生하는 疾病은 藥物療法 외에도 精神療法을 이용해서 治療하고 있는데 이는 張子和가 精神과 身體의 聯關性을 深度있게 探究하여 心身一如의 理論을 실제 臨床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活用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sup>6)</sup>, 실제로 <儒門事親, 卷7, 因憂結塊一百> “大悲哭之罷 便覺心痛 日增不已 月餘成塊 狀若覆杯 大痛不住 藥皆無功 … 至是大笑 不忍 回面向壁 一二日 心下結塊 皆散. 戴人曰: <內經> 言憂則氣結 喜則百脈舒和 又云喜勝悲. <內經> 自有此法治之.”의 경우 슬픔과 분노로 인해 病이 發生한 것을 웃음으로 治療한 것으로 五行에 배속된 感情의



相剋理論을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여 治療한 경우이다. 이렇게 感情을 氣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感情으로 인한 氣의 變化가 病의 原因이 된다는 것은 西洋醫學과 대비되는 韓醫學의 독특한 관점으로 張子和는 이 방면에 卓越한 識見을 나타내고 있다. 張子和의 心身醫學의 측면은 그의 小兒觀에도 영향을 끼쳐서 <儒門事親, 卷1, 9> “過愛小兒反害小兒 富家之子得縱其慾 稍不如意 則怒多 怒多則 肝病多矣.” 라고 하여 지나치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아이를 해칠 수 있고, 아이들의 욕심이나 의지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精神과, 身體의 病變의 原因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금 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儒門事親> 中에서 張子和는 養育不調, 藥邪, 外感邪氣, 情志過極이 小兒의 病因이 된다고 認識하였다. 이들 小兒의 病因은 各各 獨立的으로 作用하여 小兒의 疾病을 誘發할 수도 있지만 實際 臨床에서는 한 명의 患兒에게 여러가지 病因들이 混在되어 나타나는 것이 一般의이므로 상세히 살펴 治療하여야 한다. <儒門事親, 卷1, 小兒瘡癩丹熛癰疹舊蔽記五> 에서 한 아이에게 여러 病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兒之在母腹也 胞養十月 蘊畜濁惡 熱毒之氣 非一日及 歲年而後發 雖至貴與至賤 莫不皆然 輕者稀少 重者稠密 皆因胞胎時 所感濁惡 熱毒之氣 有輕重 非獨人 有此疾, 凡胎生血氣之屬 皆有蘊畜濁惡熱毒之氣 有一二歲而發者 有三五歲 至七八歲而作者.” 라고 해서 小兒의 瘡癩, 丹熛, 癰疹 등이 產母가 妊娠을 하고 있을 때 攝生의 失調를 原因으로 하여 發生한다고 하였고, 바로 이어서 “<內經> 曰: 少陽客勝則丹疹外發 及爲丹熛 手少陽者 三焦少陽相火也. 啓玄子云: 是五寅五申之歲, 卽少陽相火 司天故也, 他歲

亦有之, 但 <內經> 獨明瘡疹者 少陽相火之所爲也 俗呼曰斑疹傷寒, 此言卻有理. 爲此證時 與傷寒相兼而行.” 라고 해서 <內經> 에 말하길 少陽客氣가 侵入하여 丹疹이 밖으로 나와 丹熛가 되는 것이고, 小兒의 瘡癩, 丹熛, 癰疹은 모두 少陽相火의 客氣가 侵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或言瘡疹首尾俱不可下者 … 斯言一出, 死者塞路矣.” 에서는 誤治로 인해 小兒가 瘡癩, 丹熛, 癰疹에서 죽음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서 小兒의 病의 進行過程에서는 여러 가지 病因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모든 病因들을 모두 고려해서 治療해야만 함을 力說하고 있다. 이 것은 過去에 비해서 生活 樣態와 醫療가 더욱 복잡해진 現代에서 小兒科를 診療하는 醫師들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 2) 小兒의 治療法에 대한 考察

張子和가 주로 사용한 汗, 下, 吐 三法은 이미 <內經> 및 <傷寒論> 에 기록되어 사용되어 왔다. 張子和는 <內經> 과 <傷寒論> 의 理論을 철저히 이해하여 기존의 汗, 下, 吐 三法을 토대로 새롭게 의미를 擴充하고 活用 범위를 넓혔다. 그리고 이를 小兒에게 까지 적극적으로 活用했다. 小兒에게 汗, 下, 吐 三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張子和의 疾病觀을 考察하고, 어떻게 治療法을 講究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治療法法論을 摸索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張子和의 이러한 創造精神과 方法論에 대한 考察은 補法에만 置重하여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小兒 韓方醫療를 治療醫學으로 發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儒門事親> 의 醫案들을 중심으로 張子和가 小兒에게 應用한 汗, 下, 吐 三法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1) 汗法

張子和는 단순히 發汗시킨다는 汗法의 의미를 擴張하여 出血이나 發熱등으로 氣血이 鬱滯된 部位에 刺戟을 주어서 막힌 부분을 循環시키는 모든 방법을 汗法의 범위에 歸屬시켰다. <儒門事親, 卷2, 13> “灸, 蒸, 熏, 溲, 洗, 熨, 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 凡解表者皆汗法也.”라고 하여서 灸, 蒸, 熏, 溲, 洗, 熨, 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등 표부에 적용하여 解表가 가능한 방법을 모두 統稱해서 汗法으로 한다고 하였다. 張子和의 汗法의 목표는 表部를 열어서 막혀진 氣血을 循環하는 것이고, 氣血의 循環을 중요하게 여긴 治療法의 思想的 근거는 바로 ‘玄府’ 理論이다.

‘玄府’는 <素問, 水熱穴論>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 때는 “所謂玄府者 汗孔也.”라고 하여 단순히 땀구멍으로 認識하였다. 張子和가 가지고 있던 ‘玄府’의 概念은 劉河間이 발전시킨 ‘玄府’ 內部와 外部를 疏通시키는 機能으로써 ‘玄府’를 그대로 傳受한 것이다. <儒門事親, 卷13, 劉河間先生三消論> “故金盡言原病式曰: 皮膚之汗孔者 謂泄汗之孔竅也 一名氣門者 謂泄氣之門戶也 一名腠理者 謂氣液之隧道紋理也 一名鬼門者 謂幽冥之門也 一名玄府者 謂玄微之府也 然玄府者 無物不有 人之臟腑 皮毛 肌肉 筋膜 骨髓 爪牙 至於萬物悉皆有之 乃出入升降道路門戶也 故經曰: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 氣立孤危 故非出入則 無以生長壯老 非升降則 無以生長化收藏 是知出入升降 無器不有 故知人之眼 耳 鼻 舌 身 意 神 識能爲用者 皆由升降出入之通利也 有所閉塞則不能用也 若目無所見 耳無所聞 鼻不聞香 舌不知味 筋痿骨痺 爪退齒腐 毛髮墮落 皮膚不仁 腸胃不能滲泄者 悉由熱氣佛鬱 玄府閉塞 而致津液 血脈 榮衛 清氣 不能升降出入故也”에서 땀구멍은 氣門, 腠理, 鬼門, 玄府

라 하여 臟腑, 皮毛, 肌肉, 筋膜, 骨髓, 爪牙에서 萬物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것을 이용해서 出入 升降을 하므로 道路의 門戶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眼, 耳, 鼻, 舌, 身, 意, 神, 識이 모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出入升降이 잘 疏通 되고 있기 때문이다. ‘玄府’는 단순히 汗孔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外部와 內部를 人體의 氣血이 서로 相通할 수 있는 機能系까지 擴大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로써 張子和는 汗法을 다양한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sup>6)</sup>.

張子和가 <儒門事親>에서 活用한 汗法은 灸, 蒸, 熏, 溲, 洗, 熨, 烙, 針刺, 砭射, 導引, 按摩등 다양하지만 小兒에게는 주로 涼法, 出血法, 發汗法을 사용하였다. 이는 張子和가 생각하고 있는 小兒 生理의 特性때문인데, 小兒는 陽이 盛하므로 灸, 蒸, 熏, 熨, 烙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小兒의 陽을 助長하여 熱을 盛하게 하여 도리어 病을 惡化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涼法, 出血法, 發汗法중 醫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發汗法으로 <儒門事親, 卷6, 小兒風水> “鄧之營兵秋家 小兒病風水 諸醫用銀粉粉霜之藥 小洩反澀飲食不進 頭腫如腹 四肢皆滿狀若水晶 家人以爲勉強求治于戴人 戴人曰 此證不與壯年同 壯年病水者 或因留飲及房室 此小兒纔七歲 乃風水證也 宜出汗 乃置燠室以屏帳遍遮之 不令見火 若內火見外火必昏憤也 使大服胃風湯而浴之 浴訖以布單重覆之 凡三五重其汗如水 腫乃減五分 隔一二日乃依前治之 汗出腫減七分 乃二汗而全減 尙未能食 以檳榔丸調之 兒已喜笑如常日矣.”를 보면 小兒가 風水病이 생겼는데 醫師가 誤治를 하여 소변이 나오지 않고 四肢에 浮腫이 생기는 등 病이 깊어 졌는데 이를 發汗法으로 治療하였다. 이어서 發汗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서 땀을 내게 하는데 內火

가 外火를 보면 昏憤하게 되므로 屏風을 쳐서 불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며, 胃風湯을 복용하여 목욕을 시키고, 小兒의 몸을 배로 두르고 발한을 시켜서 浮腫을 빼낸다.” 고 하였다.

發汗法은 小兒의 情緒의 異常을 해결 하는데도 사용했다. <儒門事親, 卷6, 小兒悲哭不止> “夫小兒悲哭彌日不休 兩手脈弦而緊 戴人曰心火甚而乘肺 肺不受其屈故哭 肺主悲. 王太僕云心燥則痛甚 故燥甚悲亦甚 令浴以溫湯漬形以爲汗也. 肺主皮毛 汗出則肺熱散矣 浴止而啼亦止 仍命服涼膈散加當歸桔梗 以竹葉生薑朴硝同煎服 瀉膈中之邪熱.”에서 보면 小兒가 온종일 쉬지 않고 우는데 이는 心火가 肺를 侵入하여 肺는 悲를 주관하여 울음을 멈추지 않는 까닭이다. 여기에 發汗法을 사용하니 皮毛가 열려 肺熱이 흩어져서 治療하였다. 前述한 劉河間의 ‘玄府’ 理論에 依據해 생각해보면, 營衛를 調和시키면 막히는 바가 疏通되고 臟腑의 機能이 調達되어 情志가 和平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發汗法은 解表機能뿐만 아니라 매우 多樣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小兒를 대상으로 發汗法 中 出血法도 사용하였는데 <儒門事親, 卷6, 目翳> “清州王之一子 年十餘歲 目赤多淚 衆工無效 戴人見之曰 此兒病目翳 當得之母腹中被驚 其父曰妊娠時在臨清被圍 … 與頭上出血 及眉上 鼻中 皆出血 …”이라고 해서 아이가 目翳이 된 것을 머리 위와 눈썹 위, 코 안을 出血시켜서 治療하였다. 出血法은 皮膚科 疾患에서 특히 빈번하게 應用되고 있는데 <儒門事親, 卷6, 背疽> “一富家 女子十餘歲 好食紫櫻 每食卽二三斤 歲歲如此 至十餘年 一日潮熱如勞 戴人診 其兩手脈皆洪大 而有力 謂之曰他日必作 惡瘡腫毒 熱上攻目 陽盛陰脫之證 其家大怒 不肯服 解毒之藥 不一二年患一背疽 如盤痛不可忍 其女忽思 戴人曾有是言 再三悔過 請戴人

戴人以鍼繞疽量刺數百鍼 去血一斗 如此三次 漸漸痛減腫消 微出膿而斂 將作痂時 使服十補內托散乃痊.”을 보면 등에 생긴 癰疽 주변을 針으로 수백차례나 刺針을 해서 한 말 정도의 피를 뽑아내기를 세차례 반복해서 腫氣를 治療하였다.

涼法도 汗法의 範疇에서 運用되었는데 表部の 鬱熱에 직접 차가운 것을 접하게 하여 表鬱을 解하는 방법이다. <儒門事親> 全卷에서 涼法은 成人에게 보다 小兒에게 더 많이 適用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熱해지는 小兒의 特性 때문에 小兒에게 涼法을 적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儒門事親, 卷1, 5> “子家之親 屬故舊小兒 有患瘡胞 黑陷腹內喘者 … 又使睡臥於寒涼之處 以新水灌其面目手足 膿水盡去. 蓋四肢者諸陽之本也 兒方爲瘡胞外燔 沃以寒水 使陰氣循經 而入達於心肺 如醉得醒是亦開昏 破鬱之端也.” 를 보면 小兒의 瘡胞가 심해져서 精神 마저 昏迷해 졌는데 아이를 찬 곳에서 자게 하고 물로 눈과 손발을 씻게 하여 陰氣가 順經하여 心肺에 이르게 하여 治療하였다. 그리고 “夫瘡胞黑陷喘而滿者 十死八九, 若依此法 尙能活其六七, 何世醫與病家至今猶未悟也,”라고 하여 小兒의 皮膚科 疾患에 대한 涼法의 卓效를 力說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醫師들과 保護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여 病이 아이를害하는 것에 束手無策임을 慨嘆하고 있다. 더군다나 <儒門事親, 卷1, 5> “… 一日舟師偶見敗浦一束松流而下 漸迫舟次似聞啼聲而微 舟師疑其人也 探而出之 開視之驚見一兒四五歲許 周匝密不容隙 兩目皎然 飢而索食 因以粥飽. … 見四五歲死於瘡胞 … 其父泣曰吾兒也奔走來視 驚見兒話 大痛流涕拜謝舟師 喜抱兒歸 今二十餘歲矣. 此兒本死得水而生.”를 보면 아이가 瘡胞가 생겨 이미 죽은 줄로 알고 강에 버렸는데

강물의冷氣를 얻어 깨어나 부모를 찾아 주었다는 일화로 張子和는 小兒 皮膚科 疾患에 涼法을 運用하는데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涼法을 小兒 皮膚科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였으나 반드시 皮膚科 疾患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小兒의 驚癇類 疾患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는데 <儒門事親, 卷6, 小兒手足搐搦> “李氏一小兒病 手足搐搦 以示戴人 戴人曰 心火勝也 勿持捉其手 當從搐搦 此由乳母保抱太極所致 乃令掃淨地以水洒之乾 令復洒之 令極濕 俛臥兒于地上 良久渾身轉側泥漉皆滿 仍以水洗之 少頃而瘥矣.”에서 보면 한 아이가 手足搐搦하는데 이는 心火가 치밀어진 것으로 땅에 물을 뿌리고 아이에게 그 위를 텅굴게 하여 아이의 體溫을 낮추자 治療가 되었다. 또한 <儒門事親, 卷6, 驚風> “戴人常曰 小兒風熱驚搐乃常病也 … 氣血偏勝 必痺其一臂 漸成細瘦 至老難治 當其搐時置一竹篋鋪之涼地 使小兒寢其上 待其搐風 力行偏經絡 茂極自止不至傷人.”에서는 小兒가 驚搐하는데 대나무로 된 자리를 펴서 아이를 눕혀 놓아서 아래를 냉하게 하여 주면 風의 힘이 經絡을 두루 돌아다니다 힘이 다해 스스로 그쳐서 病이 낫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涼法은 특히 小兒科 皮膚科 疾患과 驚癇에 多用되었고 의안도 많다.<sup>7)</sup> 小兒를 純陽之體로 認識한 張子和의 小兒 生理 특성으로 볼 때 그가 涼法을 임상에서 多用하여 小兒를 治療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 (2) 吐法

吐法은 <素問, 陰陽應象大論篇>의 “其高者, 因而越之.”에 근거한다. 이후로 <金匱要略>에서 “宿食在上脘, 當吐之, 宜瓜蒂散.”이라고 하여 吐法을 실제 임상에 應用하는 법을

처음 제시 하였는데, 이후에 劉河間이 吐法에 대하여 <素問病機宣保命集>에서 말하길 “上古高醫 今用下之流 止看諸方 不知治法 不識病源 卽 不行聖人之法 去 聖遠矣 可不恐歟.”이라고 하여 河間의 시대에 이미 吐法이 임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子和는 당대에 吐法이 사용되지 않음은 안타까워 해서 <儒門事親, 卷2, 14> “夫吐者人之所畏, 且順而下之尚猶不樂, 况逆而上之, 不悅者多矣.”라 하여 사람들이 順으로 下하는 방법도 꺼려 하는데 逆하는 방법인 吐法은 더욱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다. 張子和는 이렇게 잘 사용되지 않던 吐法을 연구해서 吐法의 範圍를 擴充하여 응용하였다. <儒門事親, 卷2 13>에서 “引涎漉涎嚏氣追淚, 凡上行者皆吐法也.”라 하여 재채기를 하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등 위로 나오게 하는 모든 방법을 吐法의 範疇로 包括하고 있으며 “凡在上者皆可吐.”라고 하여 上部의 邪氣는 모두 吐法의 적용대상이 된다.

吐法을 사용하는데는 三聖散, 瓜蒂散, 獨聖散, 白米湯, 鹽水 등의 藥物을 사용하는 法 외에도 <儒門事親, 卷7, 117> “一男子落馬發狂 起則目瞪狂言 不識親, 疏 棄衣而走 罵言涌出 氣力加倍 三五人不能執縛 … 戴人以車輪埋之地中約高二丈許 上安之十中等車輪 其輞上鑿一穴如作盆之狀 縛狂病人於其上 使之伏臥以軟襪襯之. 又令一人於下坐機一枚以棒攪之 轉千百遭 病人吐出黃涎沫一二斛許 繞車輪數匝 其病人曰我不能任可解 我下從其言而解之 索涼水與之冰 水飲數升狂方罷矣.”라고 하여 기구를 사용해서 환자를 어지럽게 만들어서 吐하게 한다던가, <儒門事親, 卷2, 14> “余之療痰者 以釵股雞羽探引.”라 하여 비녀나 닭털로 목구멍을 자극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으나, 小兒에게는 이렇게 강한 방법으로 催吐 시

키지는 않고 주로 獨聖散, 白米湯 등 輕吐劑를 사용했다. 吐法은 小兒에게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강한 방법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小兒는 腸胃未成으로 易吐하기 때문에 무리한 방법이 아니다.

吐法을 사용한 醫案을 살펴보면 <儒門事親, 卷2, 14> “酒監房善良之子年十三病 沙石淋已九年矣 初因瘡疹餘毒 不出作便血 或告之令服太白散 稍止後 又因積熱未退 變成淋瀝 每發則見鬼神 號則驚鄰. … <內經>曰: 木鬱則達之 先以瓜蒂散越之 次以八正散加湯鹼等分 頓啜之 其沙石自化而下.” 라고 하여 小兒의 淋病에 瓜蒂散으로 吐하게 하여 治療했다.

<儒門事親> 中 吐法을 小兒에게 사용한 醫案들을 살펴 보면 吐法만 單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汗法이나 下法을 같이 사용하여 吐後汗 하거나 吐後下 하는 경우가 많다. “又屈村 張氏小兒年十四歲 病約一年半矣 得之麥秋發則 小腸大痛 至握其脘 跳躍旋轉 號呼不已 小溲數日不能下 下則成沙石 大便秘澀 肛門脫出一二寸 … 間矣 以調胃承氣僅一兩加牽牛頭末三錢 汲河水煎之 令作三五度 嚥之 又服苦未丸如芥子 許六十粒 日加哺上 涌下泄 一時齊出 有膿有血 涌瀉既覺定 … 戴人曰此下焦約也 不吐不下則 下焦何以開 不令飲水則 水溲何以利 大抵源清則 流清者是也.”라고 하여서 위로는 吐하고 아래로 泄瀉를 하게 하여 下焦約을 治療하였다. 吐法과 下法이 併用된 이유는 “위를 맑게 하여야 아래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의도로 下法을 用하기 전에 吐法 미리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사용한 예는 <儒門事親> 에 자주 登場하는데 “又柏亭劉十三之子年六歲, 病沙石淋, 戴人以苦劑三涌之, 以益腎散三下之, 立愈”라고 하여 小兒의 沙石淋을 吐法과 下法을 併用해서 治療했다는 기록이 있다. 吐法과 下法을 같이 사용

한 경우 뿐만 아니라 吐法과 汗法을 병용하기도 하는데 <儒門事親, 卷2, 15> “又如小兒之病 驚風搐搦 涎潮熱鬱 舉世皆用大驚丸 抱龍丸 鎮心丸等藥 間有不愈者 余潛用蒂 赤小豆等分 共爲細末 以豬膽汁 浸蒸餅爲丸 衣以螺青或丹砂 以漿水 乳汁送之 良久風涎涌出一兩杓三 五日一涌 涌三 五次 漸以通聖散稍熱服之 汗熱熾然 病日已矣.”를 보면 小兒의 驚風搐搦에 吐法과 汗法을 병용하여 治療한 것을 알 수 있다.

### (3) 下法

<傷寒論> 에서는 下法을 단지 胃家實, 즉 便閉에만 주로 사용하였는데, 張子和도 <儒門事親, 卷2, 16> “金匱要略曰痛而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難經曰痛者爲實, 腹中滿痛裡壅爲實, 故可下之.” 라고 해서 內部가 막힌 상태에 下法을 運用했으며 더욱 進一步해서 內부가 막힌 狀態 이외에도 “如目黃九疸食勞皆屬脾土 可下之宜”, “至如諸 落馬墮井 打撲閃肭損折 湯沃火燒 車碾大傷 腫發焮痛 日夜號泣不止者 予尋常談笑之間立獲大效”라고 하여서 우물에서 떨어진 경우, 타박손상, 화상, 마차에 치어서 생긴 상처, 종기가 생겨서 불에 데인 듯이 아픈 경우 등에 下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크게 효과를 보았다고 하여 下法을 여러 증상에 두루 이용하고 있다.

張子和는 下法 의미도 擴充하여 <儒門事親, 卷2, 13> “催生下乳 磨積逐水 破經泄氣, 凡下行者 皆下法也” 라고 하여 아래로 배출되는 모든 것을 下法의 範疇에 歸屬시켰다. 下法은 <儒門事親> 의 醫案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小兒에게는 下法에 비해 發汗法의 記述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첫째, 小兒는 病이 빠르게 熱火하여 發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涼, 發汗으로 解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둘째, 小兒는泄瀉가 자주 생기므로相對적으로下法을 사용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sup>8)</sup>

下法에 대해 張子和는〈儒門事親, 卷2, 16〉에서 “〈內經〉一書惟以氣血通流爲貴 世俗庸工惟以閉寒爲貴 又止知下之爲瀉 又豈知〈內經〉之所謂下者 乃所謂補也 陳腐去而腸胃潔 癥瘕盡而榮衛昌 不補之中有眞補者存焉.”이라고 하여 사람들은下法을 두려워 하지만 실제로는下法은 오래된 것을除去하여補하는 의미를 갖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下法을勸獎하고 스스로도多用하였다. 張子和는下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濫用에 대한念慮도 잊지 않고 있다. 정확한診斷 없이下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分明하게 주의를 주고 있어서 “傷寒 脈浮者 不可下 表裡俱虛者 不宜下 〈內經〉中 五痞心證 不宜下 厥而唇青 手足冷 內熱深者 宜下 寒者 不宜下 以脈別之.”라고 하여下法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를 明視하고 있으며, “蓋庸工妄投下藥, 當寒反熱當熱反寒, 未見微功轉成大害, 使聰明之士亦復不信者此也.”라고 하여下法을 망령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의를 주고瀉하는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寒, 熱을 구분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張子和가攻下법을 좋아하였으나 환자를辨證하여 필요하다는判斷이 서면 그 때서야寒, 熱을 구분하여行한 것이지 무분별한攻下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sup>9)</sup>.

張子和는下法을 小兒에게도 應用하여 〈儒門事親, 卷2, 45〉 “高爍巡檢之子八歲病熱 醫者皆爲傷冷治之 以熱藥攻矣 欲飲水水 水禁而不與 內水涸竭煩燥轉生 前後皆閉口鼻俱乾 寒熱往來嗽效時作 遍身無汗 又欲灸之 適遇戴人. 戴人責其母 曰重裯厚被煖炕紅爐 兒已不勝其熱矣 尙可灸乎 其母謝以不明 戴人令

先服人參柴胡飲子 連進數服 下爛魚腸之類臭氣異常 渴欲飲水 聽其所欲冰雪凉水連進數杯 節次又下三四十行 大熱方去 又與牛黃通膈丸 復下十餘行 兒方大痊 前後約五十餘行 略無所困 冰雪水連至一斛 向灸之當何如哉.”라고 해서 8살의 아이가 熱病이 생겼는데 醫師가 이를 傷冷으로 잘못 판단하여 熱藥으로 잘못治療하여 寒熱往來하고 煩燥하고 遍身無汗하며 陰渴이 되는 등 病勢가 惡化 되었다. 이때 또 다시 湯을 사용하여治療하려고 하는 것을 人參柴胡飲子를 주고下하게 하여서 병을 치료 하였다. 이 醫案 외에도 〈儒門事親, 卷2, 55〉 “河門劉光濟之子纔二歲 病後嘔吐發昏 用丁香豆寇之類不效 適麻先生寄其家 乃謂光濟曰余有小方無毒 人皆知之 公肯從乎 光濟曰先生之言必中於理 何敢不從 麻先生曰劉河間常言 涼膈散可治瘧 張戴人用之如神 況〈內經〉言少陽所至爲嘔涌 少陽者相火也 非寒也 光濟欣而從之 此日利二行 適王德秀自外入聞其利之也 乃曰瘧首尾不可下 麻自悔其多言 業已服矣 姑待之 比至食 時下黃涎一合 日午問之 兒已索遊于街矣.”라고 하여 두살이 된 小兒에게 瘧病이 생겨서 嘔吐를 하고 精神이 昏迷해 졌는데, 이를 涼膈散으로治療하였다. 또한 이 醫案에는 사람들이 小兒에게 함부로下하는 것을 두려워 하여 이治療法을 믿지 않으려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小兒에게下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不信이 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儒門事親, 卷2, 13〉 “夫補者人所喜, 攻者人所惡, 醫者與其逆病人之心而不見用, 不若順病人心而獲利也, 豈復計病者之死生乎.” 즉, “무릇 補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고 攻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 하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거스른다고 해서 攻하는 약을 쓰지 않음은 환자의 마음을 따라서 이득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 어찌 환자의 생사를 알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攻下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반발에 대한 辯論이 <儒門事親>全般에 걸쳐서 수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세상의 醫師들과 환자들이 모두 下法을 쓰기를 꺼려하여, 어른에게 攻下법을 쓰는 것을 두려워 하기가 이 정도인데 小兒에게 下法을 쓰는 것에 대한 세상의 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張子和는 小兒에게 반드시 下法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下法을 운용했으며 그에 대한 卓效를 <儒門事親>에 記載하고 있다. 물론, 張子和 역시 小兒에 대해 함부로 下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었으며 이는 <儒門事親, 卷2, 16> “小兒內瀉轉生慢驚 及兩目直視 魚口出氣者 亦不宜下 若十二經敗甚 亦不宜下止 宜調養溫以和之 如下則必誤人病耳.”라고 하여 小兒가 泄瀉가甚해져 慢驚風이 되었거나 들췌 손가락의 魚口 部分에 푸른 기운이 나타나면 下法을 사용할 수 없고 ‘宜調養溫以和之’ 한다고 하여 小兒에게 下法의 사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攻下法을 운용하는 데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明視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汗, 下, 吐 三法은 各各 個別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두 가지 이상이 併用되기도 하였는데, 小兒에게도 三法중 二法以上을 같이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儒門事親, 卷6, 54> “... 瓜蒂散加鬱金 上涌而下泄 ... 皆出血...”이라고 하여 瓜蒂散으로 吐하게 한 후, 泄瀉를 시키고, 또 다시 出血을 시켜서 汗, 下, 吐 三法을 한 小兒에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張子和의 汗, 下, 吐 三法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다.

3) <儒門事親>에 나타난 小兒科와 관련된 病症과 治法

<儒門事親>中 小兒科에 관련된 病症과 治法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주로 <直言治病百法>, <十形三療>, <治病雜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小兒’라고 하여 病症을 論한 것은 小兒에게만 나타난 병증, 小兒와 成人이 모두에게 나타나나 治法이나 病機가 다른 病症등에 해당한다. <儒門事親>全15卷 중 ‘小兒’라고 언급된 부분을 모두 찾아서 小兒와 成人이 같이 언급된 病症과(표. 1), 小兒만 單獨으로 언급된 病症(표. 2)을 각각 다음의 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1. 小兒와 成人이 같이 언급된 病症

病證	病因	治法
小兒驚悸	厥陰風木之主 肝木爲病	防風通聖散, 防風天麻湯, 防風湯, 祛風丸, 排風湯, 小續命湯, 消風散.
小兒瘡疹丹燥	少陰君火之主 肺金爲病	白虎湯, 桂苓甘露散, 化痰玉壺丸, 益元散, 玉露散, 石膏散
小兒疳瀉	少陽相火之主 肺金爲病	涼膈散, 黃連解毒湯, 瀉心散, 神芎丸, 八正散, 調胃散, 調胃承氣湯.
痺	風寒濕三氣合	鬱金散吐之, 吐訖以導水丸, 通經散泄之
肺痿	男子精不足 女子血不流	獨聖散吐之 人參柴胡飲子, 小柴胡飲子加當歸, 桂苓甘露散
暴注瀉水	火運太過之病 火注暴逆	桂苓甘露散, 五苓散, 益元散, 或以長流水煎過放冷服
沙石淋及五種淋瀝閉癢	火熱爲燥	益元散, 八正散, 石韋散

표. 2. 小兒만 단독으로 언급된 病症

病證	症狀	治法
眉煉	小兒眉煉在面	針刺之而出血, 一刺不愈當再刺之, 三刺則必愈矣
牙疳	牙疳者齒齲也, 齲者是牙斷腐爛	麝香 乳母臨臥當服黃連解毒湯
夜啼	小兒夜啼不止	燈花一枚 隨乳汁下併三服
丹瘤	浮赤走引, 或遍身	磁片撤出血則愈
疳眼	疳澀眼數日不開	服涼膈散數服, 眼開而愈
妳脾	小兒身瘦肌熱面黃, 腹大或吐瀉, 腹有青筋兩脅結硬, 如碗之狀	牛黃通膈丸, 甘露散, 益黃散
大小便不利	小兒大小便不利通者, 〈內經〉曰三焦約	八正散
久瀉不止	小兒久瀉不止瀉泄清白時復撮痛, 乳瓣不化	養脾丸
風水腫	小兒通身浮腫	五苓散加燈心
發驚潮搐	小兒三五歲時, 或七八歲至十餘歲, 發驚潮搐涎如拽鋸, 不省人事目瞪喘急, 將欲死	吐涎及吐之藥, 食乳之子, 母亦宜服安魂定魄之劑, 定志丸之類
身熱吐下	小兒身熱吐下腹滿不進乳	牛黃通膈丸下過四五五行則愈
風熱涎嗽	小兒風熱涎嗽	可用通聖加半夏
水瀉不止	小兒水瀉不止	服五苓與益元
瘡疥風癬	小兒瘡疥風癬	用雄黃散加芒硝少許, 油調傅之
聒瘡	小兒聒瘡久不愈 多於面部兩耳前	令母口中嚼白米成膏子, 臨臥塗之
赤瘤丹腫	小兒有赤瘤丹腫	先用牛黃通膈丸瀉之後, 用陽起石散

## 4) 〈儒門事親〉에 기재된 小兒科에 관련된 處方

張子和가 小兒에게 처방을 運用하는 방법은 〈儒門事親, 卷1, 9〉 “或曰此大人所服之藥, 非小兒所宜也. 余聞笑曰大人小兒雖幼壯不同, 其五臟六腑豈復殊耶, 大人服多小兒服少, 其實一也.”라고 하여 小兒에게 藥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成人과 같은 藥을 小兒에게도 사용하되 단지 藥量으로 藥力을 조절해서 사용하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小兒에게 사용할 處方을 따로 만들어 놓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儒門事親〉 中 卷12 〈三法六門〉 과 卷15 〈世傳神效名方〉 은 張子和가 사용한 處方의

目錄으로 構成 되어 있다. 이 目錄 中에서 小兒의 疾病을 治療한다고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는 처방을 拔萃하여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표. 3) 이는 小兒에게만 나타나는 病症을 목표로 하여 사용된 處方이거나, 小兒와 成人에게 모두 나타나지만 成人의 處方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경우에 小兒에게 사용하기 적당하게 調節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小兒科에 관련된 處方

處方名	構成 및 用法	處方の 目標
碧雲散	膽礬(半兩), 銅青(一分), 粉霜(一錢), 輕粉(一分), 右研爲細末, 每服一字, 薄荷湯調下用之	治小兒驚風有涎
丁香化癖散	白丁香, 蜜陀僧, 舶上硫黃(各一錢), 硃砂(半錢), 輕粉(少許), 右研細末, 每兒一歲服半錢, 男病女乳調, 女病男乳調, 後用通膈泄	治小兒脾
益黃散	陳皮(乙兩), 陳皮, 柯子肉, 甘草(各半兩), 丁香(二錢), 右爲細末, 每服二錢, 水煎食前服之	治小兒痢
	蘆薈, 使君子(各等分), 右爲細末, 米飲調下一二錢服之	治小兒脾疳
玉箸散	甘草(一寸煎水), 甘遂末(一字), 右同油蜜生薑銀釵兒攪之, 下後用冷水半盞調奪命散	治小兒馬脾風
奪命散	檳榔, 大黃, 白牽牛, 白牽牛, 各等分, 皆當各半生熟用之, 右爲細末, 蜜水調服之	治小兒胸膈喘滿
	麵炒蒺藜炙甘草, 羌活防風等分搗, 每服二錢漿水下	治小兒斑瘡入眼
	乾雞糞(一兩), 丁香末(一錢), 右爲末, 蒸餅爲丸如小豆大, 每服二十九, 米湯下.	治小兒黃瘦腹脹
黃連散	川黃連, 黃柏(去粗皮用), 草決明, 輕粉(各等分), 右爲細末, 用生小油調藥於瘡上塗之立愈.	治小兒頭瘡
	白膠香, 黃柏, 輕粉, 右爲細末, 羊骨髓調塗癬上	治小兒癬雜瘡
	羊糞熬湯, 洗去痂用, 屋懸燥, 炒羅爲末, 以小油塗瘡上	治小兒禿瘡
	地龍(不去土), 爲末唾津調塗病處	治小兒疝氣腫硬

Ⅲ. 結 論

張子和의 醫學思想과 醫案을 통해 오늘날의 小兒科 領域에 應用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論을 摸索하기 위해서 <儒門事親>을 小兒科와 관련된 記事를 中心으로 考察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張子和는 劉河間의 영향을 받아 小兒를 純陽之體 라고 認識하였고 小兒의 生理의 特徵을 쉽게 陽熱致盛하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 그러므로 熱을 發散하여 鬱熱을 防止 하고 陰이 損傷되는것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飽와 煖이 小兒의 健康에 害하는 主된 要因이라고 하였다.

2. 張子和는 小兒의 養育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儒門事親>을 통해 養育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원칙은 첫째, 薄衣, 淡食, 少慾, 寡怒하게 하고 둘째, 藥의 사용을 自制하며 셋째, 妊娠中 母의 適當한 勞動을 하게 하며 넷째, 産母가 情緒的 安靜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3.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養育不調, 藥

邪, 外感邪氣, 情志過極이 小兒의 病因이라고 認識하였다. 이 들은 各各 獨立의 作用하여 小兒의 疾病을 誘發하는 경우도 있으나 實際 臨床에서는 한 名의 患兒에게 이 病因들이 混在되어 나타나는 것이 一般의이므로 詳細히 살펴 治療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張子和는 小兒 臟腑의 理致가 成人과 強弱이 다를 뿐, 根本 臟理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小兒에게도 汗, 下, 吐 三法을 적극적으로 活用하여 治療하였다. 그러나 汗, 下, 吐 三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精確한 辨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實際 醫案에서는 汗, 下, 吐 三法은 各各 個別的으로 사용한 경우보다 두 가지 이상의 方法을 併用한 경우가 더 많았다.
5. 張子和의 生存時代는 現代社會와 小兒에 대한 補劑의 濫用, 잘못된 養育方法의 流行, 攻邪 治法 精神의 忘失 등 共通點이 많다. <儒門事親>에서 小兒에 應用하고 있는 張子和의 治療精神과 方法을 現代에 맞게 變化시켜 應用하는 것은 小兒 韓方醫療가 治療醫學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儒門事親> 통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術出版社. 1984:37-7, 72-83.

3. 최의권, 김경요. 이제마와 장종정의 학술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사상의학회지. 1996; 8(2):41-68.
4. 공대중, 박경수, 구병수. 유문사친중 장자화 진료의 방법적 분석.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1):67-79.
5. 송용섭, 홍원식. 장종정의 생애와 의학사상. 경희대논문집. 1986;9:319-329. 칠정 권보형. 유문사친의 공하이론과 의안의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9; 10(1):179-188.
6. 구병수. 유문사친에 나타난 신경정신과질환의 활용에 대한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2):85-93.
7. 李基祿. 精神病의中醫治療.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4:53-54.
8. 蕭國綱. 儒門事親研究. 北京:中醫古籍出版社. 1998:3-9,68-72.
9. 김의태, 김남일. 동의보감에 인용된 장종정의 의논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01; 14(1):17-30.
10. 張從正. 子和醫集. 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94.
11. 張從正. 儒門事親. 서울: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참고문헌

1. 홍원식. 중국의학사. 서울:동양의학연구소. 1984:193-4.
2. 林應秋. 中醫各家學說. 上海:上海科學技